

서울지역 主婦의 信用카드에 關한 知識, 使用動機, 管理行動間의 関係

Relationships Among Information Motive and Management Behavior of
Using Credit Card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任 貞 彬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Jeong Bin, Jin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李 映 浩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Lecturer: Young Ho, Lee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V. 분석결과 및 논의
-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is the recognition of housewives about the credit cards as a financial tool? By what kind of motive is the use made? How important the using credit card in the finance of household?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by interview using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rithmetic mean, standard deviation, χ^2 -test, ANOVA,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PC⁺ and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 using LISREL VI program.

The conclusions deduced through the result of data analysis and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spondent housekeeping, monthly average repayment of credit card is about 1/3 of the living expenses. Second, the knowledge of respondents about credit card was low generally.

Third, respondents use credit card by the motive of circulating money rather than the motive of convenience.

Fourth, generally respondents are not overdue the charge of credit card, but the smaller the cost of living is or the larger the motive of using credit card, the more overdue the charge of credit card.

Fifth, as a result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information credit card, motive of use and management behavior, the motive of using credit card effect on the management of credit card more directly than the knowledge of credit card.

Sixth, as credit card is spread widely on the future, the information of credit card will be important variable on the personal credit and the management of credit card will be more important in the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I. 序論

신용카드가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에,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서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신용카드의 이용은 부채를 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신용카드로 인한 부채는 다른 부채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므로(Eastwood, 1975), 때로는 가계 구매자가 필요이상으로 또는 불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어 가계의 재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사용은 경제생활에 긍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의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용카드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198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가정학 차원에서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그 내용이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인식비교,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과 사용행동과의 관계,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과 사용행동과의 관계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및 선택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가계 재정관리의 한 수단이라고 볼 때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과 선택결정이 사용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전체 가계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인간행동을 연구한 루드버그(Lundberg, 1968)에 따르면, 행위자가 특성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행위와 관련한 규범적 규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김일철, 1986에서 재인용).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식, 능력, 동기’의 관계를 신용카드의 사용 및 관리라는 특정행위와 결부시켜 보면, 신용카드를 사용, 관리하는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신용카드의 사용동기가 함께 고려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과 동기, 그리고 신용카드관리행동을 관련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즉, 재정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신용카드에 관하여 가계관리자인 주부가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떠한 동기로 사용하며, 그리고 실제로 그 사용이 가정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각 가정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理論的 背景

1.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신용카드가 가정경제에 대해 기능하는 바가 가정경제의 목표를 도와주는 기능을 할 때 이를 신용카드의 순기능이라 하고, 반대로 가정경제의 목표에 역행하는 기능을 할 때 이를 신용

카드의 역기능이라하고(임정빈·이영호, 1991), 그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경제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만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만족에서 재정만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따라서 재정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재정관리의 역할은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인 위기를 예상되는 일로 바꾸어, 위기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있으며(Deacon and Firebaugh, 1991)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생활설계와 경제준비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러나 가족의 생활주기가 경과함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재정적 요구가 극대화되는 반면, 가족의 자원은 최고가 아닌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Axinn and Levin, 1979), 경제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럴 경우에 최고소득기간중의 소득을 소득요구가 큰 기간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면 소득의 한계효용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전생애에 있어서 소득의 총효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설계와 경제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즉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키거나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득중 일부를 저축하는 것이다. 이중,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키는 소비자신용을 사용하는 방법을 각 가정에 일반화시킨 매체가 바로 신용카드이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미래소득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화폐, 재화, 용역을 획득하게 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용가능한 총자원의 양에는 변화가 없으나, 가정의 재정부담을 감소시켜 재정관리에 융통성을 줄 수 있다(Deacon and Firebaugh, 1975). 이처럼 신용카드의 사용은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기적절히 충족시켜 주어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정경제의 목표를 도와주는 신용카드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첫째, 신용카드를 소지함으로써 충동구매나 과잉구매를 하게

된다. 신용카드는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고통이 없는 지불수단으로 인식되므로(Hirschman, 1979) 계획에 입각한 합리적인 소비생활에서 벗어나 필요이상의 구매를 하게 되어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즉 신용카드는 과소비를 유발하여 소비자의 재정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사용상 비용이 든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면 부채에 대한 총 비용은 상품의 현금가보다 더 많게 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자부담액보다 얼마의 액수를 얼마동안 갚아야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금융업이나 신용카드거래업자들은 가외로 드는 비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세째, 반복사용의 습관이 형성된다. 만약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면 신용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되어 연쇄적으로 신용카드가 사용되면 결국에는 과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과다한 신용사용과 신용카드의 오용이 가계파산의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를 지지해 준다(Sullivan, 1982; Shepard, 1984; 岩崎和雄, 1989). 이처럼 신용카드는 가정경제의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이 신용카드가 갖는 경제적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역기능을 갖기도 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관리여하에 따라서 그 효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경제에 있어서 신용카드의 사용은 현명한 사용과 성실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용카드와 가계관리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지출요구와 소득이 불균형을 이룰 때, 신용카드의 현명한 사용은 지출요구와 소득의 흐름이 서로 협응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신용이 필요한 긴급상

황시의 가계관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드 살보(De Salvo, 1977)는 화폐를 저축하듯이 개인의 신용도 좋은 신용상태를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던싱 등(1978)도 신용 이용의 양을 정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며 정확한 예산수립은 기본적인 필수품과 저축을 위해 요구되는 금전양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용사용량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가처분소득이나 순소득, 그리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활비이다.

코리건(Corrigan, 1982)은 빚을 갚거나 신용카드의 대금을 갚을 때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순소득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소득계층이나 그 이하의 소득을 갖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그들의 순소득의 20%보다 더 적은 비율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青木茂(1970)도 신용이용에 있어서 가처분소득의 1할 이내를 안전권, 2할을 한도라고 제시하였으며 서병숙 등(1991)도 가정의 가처분소득 중 할부구매의 월부지불로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하여는 최고한도 20%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용사용량은 가처분 소득의 2할을 한도로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신용사용량을 미리 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처음으로 신용을 이요하고자 할 때나 또는 자신의 신용사용이 과다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언제든지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전략은 아니므로(Lown and Ju, 1991), 한동안 연체를 감수하더라고 현재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일정량의 재화와 효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각 신용상품에 대한 거래조건, 특히 연체이자율을 미리 알고 있다면, 신용카드를 계획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용체계의 이해에는 현시점에서의 신용상품에 대한 특성 및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가계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활설계와 생활목표에 따라 현명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가계자원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III. 先行研究의 考察

1.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지식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내용은 연회비,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연체이자율, 월간이용한도액, 개신기간 등 대체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로서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먼저 소득과 학력을 살펴보면, 고소득과 고학력자가 저소득, 저학력자보다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Mandall, 1971; Brandt, Day and Deutscher, 1975; Bower, 1979; Kinsey and McAlister, 1981; Danes and Hira, 1990; 이영호, 1986; 박근주, 1990)에서 나타났으나, 남정숙(1988)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약관의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연령과 신용카드지식과의 관계를 보면, 만델(1973)은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지식이 더 많다고 하였는데, 이유는 노년층이 돈을 벌려본 경험이 더 많으며, 정보도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헐(Hull, 197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은 지식과 負의인 관계를 보여 젊은 층이 노년 층보다 지식수준이 높고,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신용카드의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용빈도도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의 지식을 예측하는 변수로 연령, 학력, 소득, 사용경험을 택하였다.

2. 신용카드의 사용동기

많은 연구에 있어 인식(recognition), 태도(attitude), 신념(beliefs)등과 같은 개념이 뚜렷한 구별없이 사용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여러 개념들이 행동 이전에 마음 속에서 행동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동기(motivation)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플러머(Plummer, 1971)는 신용카드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태도를 비교하였는데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신용카드에 대하여 우호적이었으며, 특히 사용자들은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편리성에 우선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영호(1986)도 사용자와 비사용자로 구분하여 신용카드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사용자는 긴급한 일에 요긴하다는 점과 사용상의 편리함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비사용자는 충동구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긴급한 일에 요긴하다는 점에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신용카드가 긴급한 일에 직면해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느 점에서 사용자나 비사용자가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데인즈와 히라(1990)도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여, 편리성 사용자와 할부목적사용자로 구분하였는데 고소득, 고학력자들은 신용카드가 할부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가족수가 많은 경우에 할부목적 사용자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변수중 소득, 연령, 가족수를 신용카드 사용동기의 예측변수로 채택하였다.

3. 신용카드의 관리행동

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신용카드관리행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젊은 층이 신용카드의 주된 사용자(Mandell, 1972)라는 결과와 중년층에서 은행신용카드의 사용율이 높다는 보고(Plummer, 1971; McAlister and Kinsey, 1979)와 연령이 높은 층에서 사용율이 높다는 결과(Hirschman and Goldstucker, 1978)도 있으며, 신용카드를 활발히 이용하는 집단은 30대 주부와 20대 여성이라는 결과(横山二廊, 1983)도 있다. 또한 연령이 높고 지식이 풍부할 수록 신용카드사용이 합리적이었으며(박근주, 1990), 연령이 낮을

수록 신용카드대금을 연체시킨 경험이 많았다(남 카드로 인한 다중채무자와 다행채무자가 많다고 보고하였다(岩崎和雄, 1989)).

가계소득과 신용카드 사용과의 관계에 관한 몇몇 연구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신용카드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고(Hull, 1978; Ryan and Maynes, 1969; Samuels, 1976), 몇몇 연구에서는 고소득층의 가족이 저소득층에 비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Garcia, 1980; Hirschman and Goldstucker, 1978; Plummer, 1972). 그러나 오우와 워터스(Awh and Waters, 1974)는 소득이 신용카드 사용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카토나(Katona, 1968)는 과거보다 현재의 소득이 높으며, 미래의 소득에 대하여도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내구매를 50%나 더 구매하였으며 신용구매도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3배정도 더 이용하였다고 하였다(Swagger, 197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소득, 그리고 미래 소득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을 신용카드관리행동의 예측변수로 채택하였다.

IV. 研究問題 및 研究方法

1. 연구문제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연구문제

(1) 조사대상주부의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 그리고 관리행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용배경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

(2)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 관리행동은 그것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수들에 의하여 어떻게 결정되는가?

(3) 신용카드 사용주부의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는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은 신용카드 지불체계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약관의 내용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2) 신용카드 사용동기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동기는 자금이 필요할 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인 '자금융통성' 동기와 편리하다는 특성과 신분증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편리성 및 사회적 위세' 동기로 구성된다.

(3) 신용카드 관리행동 :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연체빈도'와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가처분소득의 1할을 초과하는 빈도'¹⁾, 그리고 '영수증보관의 빈도'를 말한다.

(4) 신용카드 사용경험 : 신용카드 사용경험은 신용카드 소유개수와 신용카드를 사용한 년수를 말한다.

(5) 자금력 : 자금력은 자금이 필요한 때에 조달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저축액, 월평균 여유자금을 말한다.

2. 연구방법

1) 표집설계

표집대상은 서울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가계의 주부이다. 목표표본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최소한 300명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국 도시지역 토지시가조사표(1989)'의 서울지역자료를 이용하여 다단계총화표집절차를 밟아 실시하였다. 표집절차는 먼저 지역을 충화하고, 각 지역별 표집대상자를 배분한 후 실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용가계를 택하는 세단계로 구성하였다.

1) 연구문제 3)에서의 신용카드 관리행동은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빈도'와 '신용카드 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신용카드 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연구자가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산출해 낸 값을 이용하였다. 이는 신용카드 대금만 고려했을 경우에 소득분포 상에서 야기되는 비교의 한계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의 대금을 생활비로 나누고 100을 곱하므로써, 가중치를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2) 자료수집과정

자료수집은 연구내용에 관한 탐색적 목적에서 1991년 12월 18일에서 1991년 12월 22일까지 5일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3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여, 응답을 꺼리거나 중복되는 문항, 그리고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응답이 용이한 문항으로 전환하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1992년 1월 12일에서 1992년 1월 20일까지 8일간 본조사와 같은 표집단계를 거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였으며 본 조사는 1992년 1월 28일에서 1992년 3월 4일까지 가정관리학 전공대학생, 대학원생, 석사 및 연구자(조사원수 83명)가 해당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주부들을 면접하였다. 총 360부를 배포하여 331부(91.9%)가 회수되었으며,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신뢰할 수 없거나, 월평균 총소득이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계를 제외한 306부(85%)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측정도구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분석방법과 측정의 수준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먼저 전문분야의 교수 한 분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내용타당도는 전공교수 두 분과 석·박사과정 네 명으로 구성된 세미나팀에 의해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척도에 포함될 문항을 선택하기 위해 각 문항이 적절한 요인에 높게 부합되는지를 알아보는 요인분석을 하였다.

신뢰도는 신용카드의 사용동기변수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먼저 사용동기를 묻는 10개 문항간의 Cronbach's alpha는 .77로 산출되었고, 이를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자금융통성동기의 Cronbach's alpha는 .72, 편리성 및 사회적 위세동기의 Cronbach's alpha는 .68로 산출되었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연구문제와 변수의 척도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 연구문제¹⁾²⁾³⁾를 위하여 SPSS/PC⁺를 사용하여 빈도분포를 살피는 한편, χ^2 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그리고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문제⁴⁾를 위해서 LISREL VI 프로그램으로 선형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서 표집된 조사대상주부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30대후반의 주부들로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며, 200만원 안팎의 소득을 갖는 중상류층으로 가족수는 4명정도이다. 이들은 총소득의 45.73%를 생활비로 지출하며, 저축은 25.39%, 부채등 정기적 지출이 21.68%, 그리고 여유자금은 13.51%를 소지하고 있었다. 신용카드대금으로는 생활비의 32.05%가 지출되고 있는데, 주로 가전제품이나 의류구입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분석결과 및 논의

1. 연구문제 1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 그리고 관리행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신용카드의 사용배경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

1)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한 지식은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지식 정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의 10개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지식 총점은 2~10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은 4.48점으로 전반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그리고 사용경험에 따라 분산분석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2). 변수의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가족형태(표 생략), 연령, 신용카드의 갯수, 사용년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용카드의 갯수와 신용카드 사용년수는 유의도가 매우 높아, 유력한 예측변수로 확인된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상의 경험이 학습효과를 가져와 지식을 풍부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신용카드의 사용동기

신용카드의 사용동기의 세부적인 문항과 개별점수는 표 3과 같다.

이들을 관련변수들과 함께 분산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신용카드의 용도와 편

표 1.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변수	문항	정답(%)	오답(%)	순위
KNW 1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77.5	22.5	2
KNW 2	카드갱신시 보증인의 책임연장여부	55.2	44.8	4
KNW 3	사용대금의 결제일	91.8	8.2	1
KNW 4	신용카드 소유권의 소재	28.4	71.6	6
KNW 5	현금서비스의 이용한도	59.2	40.8	3
KNW 6	할부구매시의 수수료율	28.1	71.9	7
KNW 7	도난 분실시의 보상범위	19.6	80.4	9
KNW 8	여행자 보험의가입 여부	20.3	79.7	8
KNW 9	대금 연체시의 연체료율	16.3	83.7	10
KNW 10	신용카드의 개신 및 탈퇴	51.3	48.7	5

표 2.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점수와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인	연령	수학 년수	가족 수	총소 득액	정기 저축	부채액	생활비	여유 자금	소득 기대	가드수	사용 년수	신용 대금
상관 계수	-.113	.073	-.035	-.037	-.002	-.087	-.014	.079188	.033

리성 및 사회적 위세동기에서 나타났는데, 긴급 구매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편리성 및 사회적 위세의 동기점수가 가장 높았다(표 생략).

표 4는 신용카드의 사용동기와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편리성 및 사회적 위세동기에서는 수학년수와 생활비, 그리고 사용 대금에서 正의인 관계를 보였으며, 자금융통성동기에서는 월평균 총소득액과 월평균저축액에서 負의인 관계를 보였고, 미래의 소득에 대한 기대와 사용대금은 正의인 관계를 보였다.

3) 신용카드의 관리행동

신용카드의 사용행동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빈도, 신용카드대금이 가처분 소득의 1할을 넘는 빈도, 그리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빈도 등 3 문항을 4점척도로 하여 질문하였다(표 5참조).

한편 연구자가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생활비와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별도로 질문하여 신용카드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생활비의 1할 이상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75.2%이며, 2할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도 42.8%로 나타났으며 3할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도 27.1%나 되었다. 위의 3문항을 관련변수들과 분산분석할 결과 신용카드의 관리 행동은 가족형태와 영수증 보관행동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확대가족의 주부가 영수증을 보관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3.22점으로 핵가족의 경우보다 높았다(표 생략).

한편 신용카드 관리행동과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먼저 연체빈도와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생활비와 사용년수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 월평균생활비가 많고, 신용카드를 오래 사용했을 수록 연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기대와 사용대금은 정적인 관계를 보여 미래에 대한 기대소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많이 지불해야 할 수록 연체를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대금이 가처분소득의 1할이 넘는다는 것은 가정경제상에서 안전권을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정기저축액과 사용대금의 2개 변수가 '신용카드대금이 가처분소득의 1할을 초과하는 빈도'와 유의한 관계로 나타나, 정기저축액이 적은 경

표 3. 신용카드사용동기의 평균점수 및 순위

동기	문항	평균	순위
자금	현금을 빌리는 손쉬운 방법이다. 목돈없이 고가품을 할부구입할 수 있다.	2.81	6
융통성	긴급한 지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3.15	2
	지불하기 전까지 자유로이 현금을 쓸 수 있다.	3.08	3
	현금이 없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2.22	9
편리 및 위세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인다. 현금이나 수표를 소지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2.32	5
성	현금이나 수표보다 지불하기에 간편하다. 현금준비 시간이 절약된다.	3.40	1
편리 및 위세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인다. 현금이나 수표를 소지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1.64	10
성	현금이나 수표보다 지불하기에 간편하다. 현금준비 시간이 절약된다.	2.98	4
		2.75	7
		2.69	8

표 4. 신용카드사용동기 점수와 관련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연령	수학년수	가족수	총소득액	정기저축	부채액	생활비	여유자금	소득기대	카드수	사용년수	신용대금
등기총점	.017	.065	-.033	-.150	-.174	-.033	.019	-.110	.133	.069	.072	.138
편리성동기	.035	.122	.012	-.023	-.086	.086	.115	-.059	.081	.058	.090	.138
자금융통성동기	-.001	.008	-.057	-.200	-.191	-.059	-.052	.117	.135	.059	.041	.101

표 5. 신용카드의 관리행동

변 수	집 단	빈 도	백분율
연체빈도	전혀 연체한 적이 없다.	205	67.0
	별로 연체한 적이 없다.	77	25.1
	대체로 연체한 적이 없다.	21	6.9
	항상 연체한다.	3	1.0
신용카드 대금이 가처분 소득의 10%초과	전혀 그렇지 않다.	67	21.9
	별로 그렇지 않다.	127	41.5
	대체로 그렇다.	82	26.8
	항상 그렇다.	30	9.8
영수증 보관	전혀 그렇지 않다.	26	8.5
	별로 그렇지 않다.	63	20.6
	대체로 그렇다.	90	29.4
	항상 그렇다.	127	41.5
		306	100.0

표 6. 신용카드관리행동과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

신용카드 관리행동변인	수학 연령	수학 년수	총 가족수	총 소득액	정기 저축	부채액	생활비	여유 자금	소득 기대	카드수	사용 년수	사용 대금
연체빈도	- .072	.043	- .066	- .090	- .078	- .079	- .121	.006	.118	- .055	- .116	.231
1할 초과빈도	.042	.004	.073	- .051	- .096	.069	.076	- .042	.068	.174	.054	.363
영수증 보관	.010	.014	.018	.031	.022	.024	- .008	.018	- .006	.031	.001	.026

우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빈도가 높았다. 한편 영수증 보관행동은 제 변수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신용카드대금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연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월간 신용카드 사용의 한도를 미리 설정해두고 그 한도를 지키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연구문제 2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 그리고 관리행동은 그것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변수들에 의하여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관계수(r)는 변수간의 관계(正的 相關이나 負的 相關이냐)와 그 관계의 강도만을 나타내므로, 변수간 영향력의 방향을 설정하고,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이론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중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 8, 9, 10과 같다.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 그리고 관리행동이 그것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변수들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개의 회귀식의 설명력은 높지 않으나 F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먼저,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표 7에서는 설정했던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동기와 관리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보면 모두 지식이 독립변수로 투입되었으나, 표 8, 9, 10에서는 지식이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투입요소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문제 (1)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사대상 주부들의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특히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리라 예상되었던 연체율이나 할부수수료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식수준은 더욱 낮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표 7.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과 관련변수의 단계적 회귀분석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된 계수(β)
카 드 갯 구	.147***	.197
사 용 년 수	.104**	.176
연 상	- .028**	- .145
	4.326	
R ²		.096
F		10.657***
비		

P<.01 *P<.001

표 8. 신용카드 사용동기와 관련변수와의 단계적 회귀분석

	신용카드 사용동기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된 계수(β)
장 기 저 축	- .016***	- .204
신 용 카 드 사 용 대 금	.035**	.160
소 득 기 대(PRO)	.900*	.135
상 수	25.013	
R ²		.076
F		8.223***
비		

*P<.05 **P<.01 ***P<.001

표 9. 연체빈도와 관련변수의 단계적 회귀분석

	연체빈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된 계수(β)
사 용 대 금	.0083***	.269
생 활 비	.0025***	- .173
상 수	1.450 ***	
R ²		.083
F		13.800***
비		

***P<.01 ***P<.001

표 10. 신용카드대금이 가처분소득의 1할을 초과하는 빈도와 관련변수의 단계적 회귀분석

	신용카드대금이 가처분소득의 1할을 초과하는 빈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된 계수(β)
사 용 대 금	.015***	.356
사 용 동 기	.033***	.171
정 기 저 축	- .002*	- .118
상 수	3.898	
R ²		.182
F		22.361***
비		

***P<.05 **P<.01 ***P<.001

정기저축액은 사용동기와 사용대금이 가처분소득의 1할을 초과하는 빈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저축액이 많을수록 사용동기도 적고, 사용대금이 가처분소득에서 1할을 차지하는 빈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체빈도에서는 정기저축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연체빈도에서는 사용대금이외에 생활비의 영향력이 나타나 생활비가 적을수록 연체를 자주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연체빈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용대금은 표 8, 9, 10 모두에서 설명력과 유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은 단일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직접효과만을 설명하므로 이들의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관찰변수와 이론변수를 구분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변수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필요가 있다.

3. 연구문제 3

신용카드 사용주부들의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는 관리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과 사용동기가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 2절의 결과를 토대로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의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을 제외한 사용동기와 연체빈도, 그리고 사용대금이 가처분소득의 1할을 초과하는 빈도 모두에서 사용대금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정경제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변수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가정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므로 '연체빈도'와 '사용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종종속변수로 하였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주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그리고 사용배경중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와 관리행동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과 사용동기를 매개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관리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의 연결관계를 가정하여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지를 리스렐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을 위해서 리스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첫째 리스렐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선형구조관계(linear structural relations)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 1988 : 10)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용카드사용행동과 관련된 예측변수로는 경제적 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월평균총소득'이라는 단일 측정변수이외의 월평균저축액, 월평균생활비, 월평균부채지불액, 월평균여유자금 등도 중요한 변수로 예측되므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LISREL이 가장 적합한 분석이라고 판단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계프로그램으로 신용카드사용에 관한 선형관계를 분석하려면, 독립변수간의 自己相關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인해 위의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킬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나 리스렐 프로그램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1, 2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변수간의 관계와 방향을 구조모형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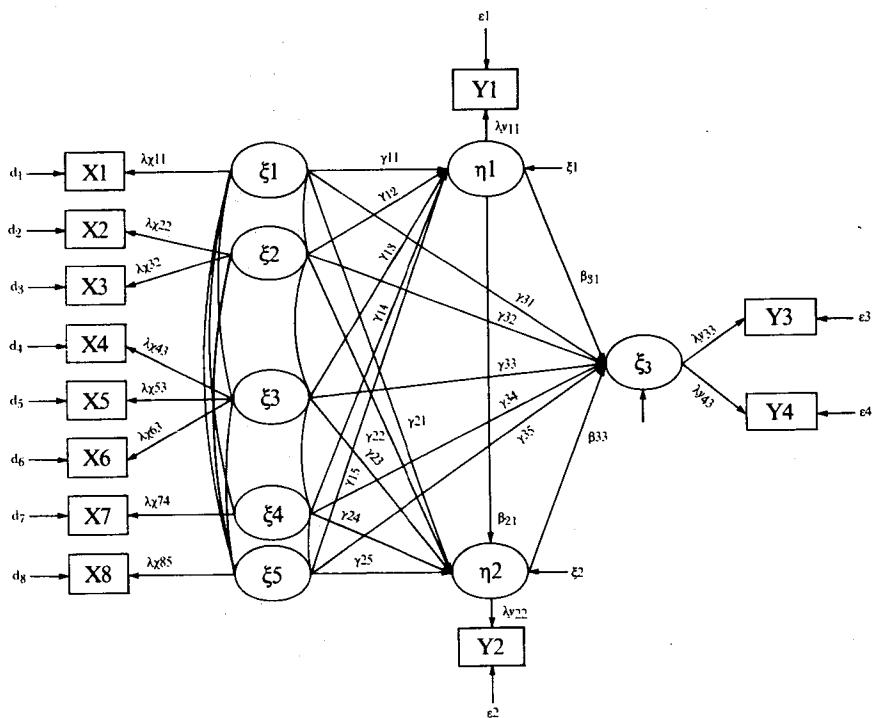
표 11은 모형에 포함된 관찰변수들간의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이며 이 매트릭스가 리스렐(LISREL) VI 프로그램에 투입되었다.

모형결정에 요구되는 것은 그림 1의 모형이 이값과 어느 정도 적합한가이다. 즉, 관찰된 상관관계 매트릭스는 모델에 의해 산출된 추정매트릭스가 서로 부합되느냐이다. 부합도 평가를 위한 자료로는 주로 4가지가 고려되는데(Jöresog and Sörbom, 1988 : 43), 카이자승 값(χ^2 ,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가 그것이다¹⁾ 그림 2의 경우는 카이자승 값이 49.06(자유도=31)이고 기초부합치는 .975, 조정부합치는 .936, 원소간 평균차이는 .040으로 부합도가 평가되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의 지식(η_1)은 신용카드 사

표 11. 관찰변수간의 상관관계

	Y1	Y2	Y3	Y4	X1	X2	X3	X4	X5	X6	X7	X8	
Y1	1.000												
Y2	.124	1.000											
Y3	.020	.100	1.000										
Y4	.009	.190	.266	1.000									
X1	—	.113	.017	—	.072	—	.119	1.000					
X2		.234	.086	—	.055	.024	—	.011	1.000				
X3			.188	.072	—	.116	—	.084	.195	.202	1.000		
X4				.035	—	.150	—	.090	—	.046	.293	.097	
X5					—	.037	—	.174	—	.078	—	.023	
X6						—	.014	—	.110	.006	—	.022	
X7							—	.087	.020	—	.121	—	.290
X8								—	.079	.133	.118	.166	—

그림 1.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 관리행동간의 구조모형²²⁾.

22) 내생적 이론변수인 η_1, η_2, η_3 를 종속변수로 하는 3개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eta_1 = \gamma_{11}\xi_1 + \gamma_{12}\xi_2 + \gamma_{13}\xi_3 + \gamma_{14}\xi_4 + \gamma_{15}\xi_5 + \xi_1$$

$$\eta_2 = \gamma_{21}\xi_1 + \gamma_{22}\xi_2 + \gamma_{23}\xi_3 + \gamma_{24}\xi_4 + \gamma_{25}\xi_5 + \gamma_{21}\xi_1 + \xi_2$$

$$\eta_3 = \gamma_{31}\xi_1 + \gamma_{32}\xi_2 + \gamma_{33}\xi_3 + \gamma_{34}\xi_4 + \gamma_{35}\xi_5 + \gamma_{31}\xi_1 + \gamma_{32}\xi_2 + \xi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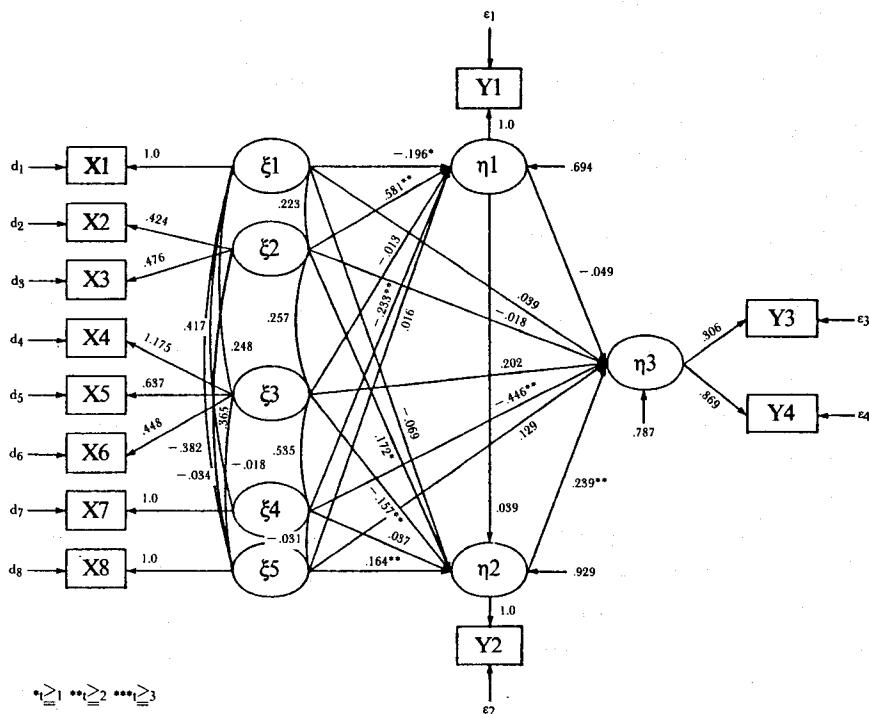


그림 2.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 관리행동간의 LISREL 분석모형.

이론 변수의 내용	측정 변수의 내용
ζ_1 =연령	$X_1=\zeta_1$ 과 동일
ζ_2 =사용경험	X_2 =신용카드의 개수
ζ_3 =자금력	X_3 =신용카드의 사용년수
ζ_4 =월평균생활비	X_4 =월평균총소득
ζ_5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	X_5 =월평균정기저축액
η_1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X_6 =월평균여유자금
η_2 =신용카드의 사용동기	$X_7=\zeta_4$ 와 동일
η_3 =신용카드관리행동	$X_8=\zeta_5$ 와 동일
	Y_1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Y_2 =신용카드에 사용동기
	Y_3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연체빈도
	Y_4 =신용카드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용경험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사용경험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581로서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을 예측하는 가장 유력한 변수이므로 연령이 많거나 생활비가

- 1) 기초부합치(GFI)는 표본크기가 200이상일때, 적어도 0.9이상이 되어야 모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고 0.95이상이면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조정부합치(AGFI)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원소간평균차이(RMR)는 분석자료가 상관자료일 때 0.05 이하이면 잘 맞는 모델로 간주된다(이순목, 1990 : 82-84).

많더라도 사용경험이 많다면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사용경험을 의미하는 카드개수와 사용년수 그리고 연령의 세가지 관찰변수에 의해 신용카드에 관한 전체 분산중 9.6%가 설명되었으나, 본 절에서는 사용경험이라는 이론변수를 설정함으로써 연령, 사용경험, 그리고 생활비에 의해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의 전체분산중 30.6%가 설명되었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동기(η_2)도 역시 신용카드

사용경험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에서는 사용년수나 카드개수가 사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으나, 이 두개의 변수를 사용경험이라는 이론변수로 조작하므로써 사용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미래소득에 대하여 낙관적 전망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총 소득과 저축액 그리고 여유자금이 충분할수록, 즉 자금력이 풍부할수록 신용카드사용의 동기는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신용카드의 사용동기가 편리성 및 사회적 위세의 동기보다 자금융통을 위한 동기가 더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위의 3가지 외생적 이론변수들은 신용카드 사용동기의 7.1%를 설명해 준다.

최종 종속변수인 신용카드 관리행동(η_3)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빈도와 신용카드대금을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구분되는데, 신용카드사용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Y_4)이 연체빈도(Y_3)보다 상대적 중요도가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관리행동은 월평균생활비(ξ_4)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월평균생활비는 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월평균생활비가 적을수록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더 빈번하게 연체시키며 그 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체빈도가 갖고 사용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더라도 미래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일수록 그러한 사실을 문제로 여기는 강도가 약하는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추측된다.

한편 자금력이 큰 경우에도 신용카드관리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체빈도보다 생활비에서 신용카드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국한시켜서 해석하면²⁾, 자금력이 큰 경우에 신용카

2) 본문의 표 18에 따르면, 자금력을 나타내는 총소득액과 정기저축액, 그리고 여유자금은 연체빈도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림 3에서도 연체빈도($\lambda y_{33} = .306$)보다 신용카드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lambda y_{43} = .869$)의 상대적 중요도가 더 높다.

드 사용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동기도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쳐 신용카드 사용동기가 높을수록 연체하는 빈도나 생활비에서 신용카드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에는 직접효과만 표시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관리행동에는 신용카드 사용동기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도 있다. 즉, 연령과 신용카드 사용경험은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중 사용경험은 사용동기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 또한 자금력과 소득기대는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사용동기를 경유해서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21.3%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구조모형 전체의 구조적 등식을 결정해 주는 총계수(Total coefficient)는 .458이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량 중 45.8%가 이 모델에서 가정한 변인들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과 사용동기가 관리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지를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5개의 외생변수는 신용카드의 지식을 30.6%을 설명해주지만, 지식은 사용동기와 관리행동 중 어느 변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은 관리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나 간접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동기는 관리행동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써 지식보다 신용카드의 사용동기가 관리행동에 대한 예측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관리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동기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문제 3에서 리스렐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효과는 회귀분석에서 각각의 설명력에 비해 이론변수와 관찰변수를 구분하므로써 설명력이 개선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금력(ξ_3)과 생활비(ξ_4)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 냈

다는데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로모형에서 소득이라는 단일변수로 관계를 파악했다면 상반되는 방향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약한 영향력을 보였으리라 추측된다³⁾.

VI. 結論 및 提言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은 생활비의 1/3정도를 차지하여, 가계관리에서 신용카드 관리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둘째, 신용카드관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신용카드사용지식은 사용경험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므로, 신용카드사용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이론교육보다 사례소개를 통해 간접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째, 신용카드사용의 지식은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특히 신용카드의 선택이나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카드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연체료율이나 도난 분실시의 보상범위에 관한 지식은 매우 희박했다. 앞으로 실시될 회원종합평점제에 대비해서 사용자의 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사용자에서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네째, 조사대상자들의 신용카드를 긴급한 일에 사용코자하는 동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가맹점은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약국이나 병원등 긴급한 사용처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 확산되어야 한다.

다섯째, 신용카드의 사용동기는 자금융통성 동기는 동기가 편리성 동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3) 이것에 대한 증거로는 리스렐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한 테인즈와 히라(1990: 232)의 연구결과에서도 뚜렷이 입증된다. 그들은 리스렐이 하나의 이론변수에 다수의 관찰변수를 허용한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의 사용행동에 가계소득이 유의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자금융통성동기는 자금력이 빈약한 가계와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일 수록 더 높았다. 이는 현재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사용량을 반드시 미리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회원종합평점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사용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절실히 요청된다.

일곱째, 리스렐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경제적 변수를 관찰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자금력과 생활비가 상반된 방향으로 신용카드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신용카드관리행동에 대한 설명이 체계적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리스렐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여덟째, 신용카드관리행동에 대해 지식은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앞으로 회원종합평점제가 실시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모형을 이용한 시계열적 연구는 회원종합평점제의 효과 및 지식변수의 효과를 밝히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신용카드의 지식과 동기, 그리고 가계관리행동의 연결을 시도한 것임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위의 세변인간의 관계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방법과 조사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득을 이전시키는 일생주기 가설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주기를 독립변수로 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시간개념 및 가족생활주기를 변수로 포함시키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세째, 신용카드의 관리행동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제도의 효과를 밝히는데 유용하리라 본다.

네째, 디컨과 화이버의 관리행동모형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의 관리행동을 과정변수로 하고 생활만족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관리행동효과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신용카드와 관련한 연구, 특히 신용카드사용지식을 변수로 한 연구는 현행시장환경과 밀접하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보를 이용하여야만 실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일철(1986). 사회구조와 사회행위론. 전예원.
- 2) 남정숙(1988).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행동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근주(1990).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서병숙·소연경(1991). 신가정경제학. 수학사.
- 5) 이순목(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원사.
- 6) 이영호(1986). "도시민의 신용카드 사용패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임정빈·이영호(1991). "신용카드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77-91.
- 8) 주인숙·Lown, J.M.(1991). "Credit Use & Financial Satisfaction".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79-186
- 9) 차종천(1991). "사회계층연구를 위한 Lisrel모형", 한국사회학연구회 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학연구회. 584-605
- 10) 채서일·김범종(1988).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법문사.
- 11) 최동숙(1985). "신용카드 사용주부들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 12) 한국감정원(1989). 토지시가조사표.
- 13) 青木茂(1970). 家庭の經濟相談, 東京: 有斐閣, 128.
- 14) 橫山二郎(1983). "クレシト産業と家計", 國民生活 13(10), 12-19.
- 15) Awh, R.Y. & Waters, D.(1974). "A Discriminant Analysis of Economic, Demographic,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Bank Charge Card Holders". Journal of Finance 2(3).
- 16) Axin, J. & Levin, H.(1979). "The Family Life Cycle and Economic", Security, Social Work, 24, 506-546 : "Tuttle, R.C.(1989)", Poverty over the Family Life Cycle,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4), 268에서 재인용.
- 17) Bowers, J.S.(1979). "Consumer Credit Use by Low Income Consumers Who Have had a Consumer Education Course : An exploratory stud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3, 334-345.
- 18) Brandt, W.K., Day, G.S. & Deutscher, T.(1975).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nsumer Credit Knowledge : A longitudinal analysi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9, 15-32.
- 19) Corrigan, E.B.(1982). Your Credit Rights : An institutional unit on consumer credit protection,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 20) Danes, S.M. & Hira, T.K.(1990). "Knowledge, Beliefs Practices in the Use of Credit Car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3), 223-235.
- 21) Deacon, R.E. & Firebaugh, F.Y.(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 Allyn & Bacon Inc., 145.
- 22) Desalvo, L.J.(1977). Consumer Finance, John Wiley & Sons, 77-96.
- 23) Dunsing, M., Hafstrom, J.L. & Schnittgrund, K.P. (1973). Consumer Credit : Uses, Costs, Laws, Circula 1087.
- 24) Eastwood, D.B.(1985). The Economics of Consumer Behavior, Boston : Allyn and Bacon.
- 25) Hira, T.K., Fanslow, A.M. & Titus, P.M.(1989). Changes in Financial Status Influencing Level of Satisfaction in Households,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07-121
- 26) Hirschman, E.C.(1979). "Differences in Consumer Purchase Behavior by Credit Card Payment Syste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59-60
- 27) Hirschman, E.C. & Goldstucker, J.S.(1978). Bank Credit Card Usage in Store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Retailing 54(summer), 3-12
- 28) Jöreskog, K.G. & Sörbom, D.(1989). LISREL 7 :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s, 2nd ed., SPSS Inc.
- 29) Mandell, L.(1972). Credit Card Use in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 of Michigan.

- 30) _____(1973). Consum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Consumer Credit.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 23-26.
- 31) Mathews, H.L. & Slocum, J.W.(1970). Social Class and Income as Indicators of Consumer Credit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34(2), 69-74.
- 32) Shepard, L.(1984). Accounting for the Rise in Consumer bankruptcy Rates in The United States : A preliminary analysis of aggregate data(1945-1981)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8(2).
- 33) Sullivan, C.(1982). bankruptcy Study : Monograph #24, Credit Research Center,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Indiana.
- 34) Swagler, R.M.(1979). Consumers and the Market : An introductory analysis, D.C. Heath and Company.
- 35) 青木茂(1970). 家庭の經濟相談. 東京：有斐閣, 128.
- 36) 横山二郎(1983). “クレジット産業と家計”. 國民生活 13(10), 12-19